노동 포커스

일터혁신의 현황과 과제

오 계 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을 작업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일터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는 선진국 경제구조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터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터혁신은 작업장 수준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수준의 어젠다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일터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다시 만들기(Remaking Americ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추진하여 첨단제조업 육성에 집중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산업 4.0 정책을 통해 첨단기술 전략에서 진화된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기술전략 2020 액션플랜의 10개 미래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제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자가 소비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1단계로 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단계로 2035년까지 제조강국 중위권으로 진입하고, 3단계로 2045년까지 제조업 선도 국가로 진입한다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제조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양적 성장방식에서 질적 성장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일본재흥전략을 계획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경제재건을 위해 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상으로 사회 5.0(Society 5.0)을 제시하였다. 일본 Society 5.0 정책의 특징은 이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okt8941@kli.re.kr).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노동시장 환경보다 일터혁신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근로시간 규율이 이루어지면서 정해진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일터혁신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터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존재한다 하겠다. 현재의 상황에서 일터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일터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터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추진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호 특집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대부분의 일터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업에서 일터혁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일터혁신이 기술혁신과 인사관리 방식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일터혁신 측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제조업에서 일터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사례들을 다루었다.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업종별로 적합한 일터혁신의 모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역별 일터혁신 모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 일터혁신 모델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일터혁신 추진에 있어서 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의 일터혁신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보다 먼저 일터혁신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외국은 어떻게 일터혁신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산업 업종 및 지역 단위에서 일터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터혁신은 필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고민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근로자 특성에 적합한 일터혁신 모델을 찾아 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종별·지역별 일터혁신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터혁신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무능력 향상과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일터혁신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개별 작업장을 넘어서는 이슈가 있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활용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고용노동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터혁신에 있어서도 노사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일터혁신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에서 고성과작업장 모델을 통해 일터혁신을 추진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추

가적인 이윤이 발생할 경우 그 파이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성과배분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리뷰』 이번 호에서는 제조업 일터혁신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지역별 일터혁신 모델, 선진국의 일터혁신 모델 등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번 특집호가 우리나라 작업장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터혁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일터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I